

치킨값 치솟는데 육계 농가 수익성 2년새 80% 폭락

통계청, 2016 축산물생산비 조사

치킨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정작 닭고기 사육농가의 수익성은 2년 연속 추락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축산물생산비 조사'를 보면 작년 육계(닭고기) 한 마리당 순수익은 21원으로 전년(67원)보다 무려 68.9% 감소했다.

육계의 수익성은 2년 연속 악화했다. 2014년 수익성은 112원으로 2년 사이에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무너졌다. 계란 순수익도 2년 연속 고꾸라졌다.

산란계 한 마리당 순수익은 달걀 가격 하락으로

한마리 순수익 고작 21원

계란 순수익 2년 연속 감소

돼지고기 수익성도 16% ↓

로 전년보다 23.2%(548원) 줄어든 1815원이었다. 2014년 순수익은 4147원으로, 2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통계청 김진 농어업동향과장은 "달걀 공급이 많아 도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 한 마리당 수익성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육돈(돼지고기)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작년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15.9%(1만5000원) 감소한 8만2000원이었다.

반면 소의 수익성은 대부분 개선됐다. 한우비육우(소고기) 한 마리당 순수익은 9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13%(67만2000원) 증가했다. 정부의 번식 감축 정책으로 공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젖소의 순수익은 전년보다 소폭(3만5000원, 1.3%) 오른 284만4000원이었다.

한우번식우 한 마리당 순수익은 26만6000원이었다. 전년에는 한 마리를 기르면 19만2000원 손해를 봤지만, 이익으로 전환했다.

육우 한 마리를 키우면 17만4000원 손해를

봤다. 전년 손해 20만7000원보다는 그 폭이 감소했다.

작년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한우비육우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축종별로 보면 계란이 7.4% 감소해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송아지(-3.6%), 육계(-2.6%), 육우(-1.8%), 비육돈(-1.0%) 순이었다.

통계청은 사료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우비육우는 사료 가격 하락에도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수출 호조 등 경기지표 개선 주목

코스피·코스닥 상승 펄리 지속

소재·산업재·증권·보험주 관심

코스피지수가 5일 연속 신고가를 갱신하며 연초 국내증권사들이 코스피지수 상승으로 제시했던 2,350포인트를 돌파했다. 4월 중순 이후 상승장을 겪었던 국내의 기업 1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며 상승모멘텀이 악화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유보적인 가운데 미국 트럼프 및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탄핵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글로벌증시는 숨고르기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신정부 J노믹스 정책기대와 기관의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22일 월요일 사상처음으로 증가기준 2300포인트를 돌파하며 5일연속 신고가펄리를 펼치며 한주간 2.9% 상승한 2355.30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도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이기는 했지만 3.5포인트(0.54%) 상승하며 모처럼 양지수가 동반상승했다.

코스피지수 신고가 펄리는 한국 수출지표개선과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의 4월 수출 증가율은 24.2%로 시장 예상치 17%를 크게 상회했고 수출금액도 510억 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진투자증권은 5월 수출증가율도 20%(480억)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여름비수기를 지나 선진국연말 소비시즌 영향으로 9월부터는 수출경기가 다시 호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연초 이후 7주 9400억원의 순매수 했고 5월에만 1조 7056억원의 순매수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연초 이후 외국인은 8,255억원의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개인이 1조 6271억원을 순매수하며 개인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선호심리를 보여 주었다.

외국인의 투자결정에는 기업실적과 함께 투자국가의 환율을 고려하는데 신고가펄리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지수를 평가할 때도 단순 코스피지수가 아닌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달러환산코스피지수(코스피지수에 원·달러 환율을 고려해 산출한 지표로 외국인 투자자 편에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한 자신의 변동을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코스피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이날 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한 뒤 산출하지만 달러 환산 주가지수의 기준 시점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완전 폐지된 1998년 5월 25일이다)를 보게된다. 지난주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치를 돌파했지만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달러환산 코스피지수는 1,017.19포인트로 2007년 11월 최고치 1117.16 포인트대비 약 10%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현재시장이 개인과 기관이 냉랭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추가상승 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모임에서 증권사 지점장인 필자에게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지와 좋은 종목을 추천해 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수 신고가 속에서 오르지 않은 좋은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를 많이 만나게 된다. 필자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고 올해 상승장은 외국인 이 끌고 있는 시장으로 대형주 중심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IT 및 소재·산업재 대표주와 증권·보험 등 2분기 실적모멘텀이 있는 업종대표주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 신고가펄리에도 오르지 않은 숨은 진주를 찾기도는 외국인의 투자패턴을 믿고 시장을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지은행 통해 빚 갚고 부농 꿈 이뤘어요”

연매출 12억 고흥 ‘父子 농부’ 김부일·태중 씨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빚을 갚고 부농의 꿈을 이룬 ‘부자 농부’가 화제다.

“농지은행이 가업을 잇게 해 준 은인이다”고 말하는 김부일(58)씨. 그는 30년 농업 경험을 밑거름으로 아들 태중(32)씨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4살에 소 한 마리와 논 두 마지기로 농사를 시작한 김부일씨는 현재는 소 480두에 20ha를 경작하며 연매출 12억의 부농이 되기까지 김부일씨가 말하는 농지은행과의 인연을 들어본다.

김씨는 “한 마리로 시작한 소가 4년 만에 스물일곱마리로 늘었지만 불행이 찾아오면서 소 키우던 사람은 목메거나 야반도주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여러 차례 농사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딱 십 년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고향을 지켰고 노력 덕분에 60두에 7ha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IMF의 어려움은 농업에도 찾아왔고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한 달이면 소 세 마리 값이 나갈 정도로 감당이 어려워졌다.

돌파구를 찾던 김대표는 1998년 한국농어촌

농어촌공사에 농지매입 부채 상환

해당 농지 임차 받아 농업 이어가

현재 소 480두·농사 20ha 경작

공사를 찾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구입과 임대차를 통해 경영규모를 늘렸다. 꾸준히 키워오던 소 사료 값을 줄이기 위해 2모작으로 조사를 재배까지 하면서 소 150두에 20ha를 경작하게 됐다.

그러나 소 값이 불안정해달라 쌀값 하락을 반감하 겪으며, 축산 시설투자를 계속해오다 보니 7억원이 넘는 부채로 매년 이자만 2000만 원을 감당해야하는 위기가 찾아왔다. 커진 규모만큼 부채규모도 크고 이자부담도 커졌다. 김부일씨는 2010년 다시 농지은행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경영회생사업으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가장 부담이 됐던 단기 고율 부채 4억원



을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받아 농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빚이 없으니 진짜로 하고 싶었던 농업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김부일씨는, 이모작을 통한 조사료 재배와 함께 직접 배합한 사료를 개발해 소를 키우고 출하시키며 역량을 키워나갔다. 올해는 공사에 매도했던 농지를 환매 받아 부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또 2년 전부터는 고품지역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만든 고품향우명품화사업단영농조합 대표를 맡아 연매출 30억 규모로 성장시키며 활

활한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아들 태중 씨도 부친의 가업을 잇겠다는 의지로 전공까지 바꿔 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귀농해 후계농업인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있는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하고 농지는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에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있는 제도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올해 4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영위기 농가에 지원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주 전복종자업체 찾아 현장 클리닉

전남어촌특화센터·도해양수산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가 최근 1박2일간 제주도 일대 전복종자업체를 찾아 현장 클리닉을 벌였다.

(사진)

28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에 따르면 노한성 전복팀장, 박영진 해조류 팀장, 선승전·정병길 연구사 등 4명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일수산, 한리전복, 동원영역조합법인 등 3곳을 방문했다.

이들은 업체 내 양식장의 해수 분석을 (주)연안관리기술연구소에 의뢰하는 한편 전복 치패 먹이생물인 규조류가 파판(PET 재질의 판)에 잘 부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노한성 팀장은 “제주도의 경우 전복의 먹이가 되는 다시마, 미역 등이 부족해 대부분 살포용으로 사용하는 치패까지 중간육성하고 있다”며 “종자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 향후 양식전복이나 종자의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

010-8628-0482